

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장 동정자료



■ 매수 : 3매 ■ 사진 :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press.webhard.co.kr) ID/PW:press1

담당 :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이준형	2133-6205	신문팀장 김경진	2133-6207	담당자 김가영	2133-6252
--------------	-----------	-------------	-----------	------------	-----------

오세훈 시장, “한강 리버버스를 서울시민의 매력적인 수상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선착장 접근성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 8일(월),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조성 예정지 현장점검 -

-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월) 오후 4시 10분, 오는 10월 운행을 시작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예정지 3곳 (옥수, 뚝섬, 잠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지난 2월 서울시는 마곡~잠실을 운행하는 ‘한강 리버버스’ 운항계획을 발표했다. 199인승 ‘한강리버버스’는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1일 68회 운항 예정이다.
- 시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 대중교통 연계, 나들목 및 주차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7곳에 선착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 오 시장은 "한강 리버버스가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착장과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며 선착장 예정지 주변 지하철, 버스노선 등 육상 대중교통과의 연계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 현재 서울시는 시민과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이 한강 리버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선착장과 가까운 곳에 버스노선을 신설·조정하고 모든 선착장 주변에 따릉이를 추가 배치하는 등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이번에 방문하는 3개 선착장 중 '옥수'와 '뚝섬'은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 도보 4~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이들 선착장에 대해선 보행로 정비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접근로 주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따릉이 주차장도 마련한다.
 - '잠실'은 선착장 도보 4~5분 지점에 정류소를 추가 설치하고 따릉이를 추가 배치해 이동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 오 시장은 "한강 리버버스가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선착장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선착장이 여러 상황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엔 선착장 위치를 조정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 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강이용증진과장 이진오 ☎3780-0661

■ 현장사진



8일(목)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는 10월부터 운행 계획인 한강 리버버스 옥수 선착장 건립 예정지를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선착장 위치와 대중교통 연계 상황 등 시민 접근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8일(목)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는 10월부터 운행 계획인 한강 리버버스 독섬 선착장 건립 예정지를 찾아 선착장 조성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시민 안전 대책 강화 등을 지시하고 있다.